

2024 Vol. 24

ISSUE & FOCUS

전국연구개발지원단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Contents

04	20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광주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방안	02 지역과학기술 COLUMN 지역산업 관점에서 바라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23	48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2.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3.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04 R&D 성공사례 대구광역시 플랫폼형 지역현안 발굴체계 운영
53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광주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방안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그린카진흥원

지역과학기술 이슈페이퍼(ISSUE PAPER)

광주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방안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그린카진흥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모빌리티 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환경 조성

- 4차 모빌리티 혁명은 C(Connected, 연결성)와 A(Automated, 자율주행)에 S(Shared & Service, 차량공유·서비스), E(Electric, 전기차)가 더해져 과거 100년간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도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
- 친환경 & IT 결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사람-사람의 연결뿐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기존 공간을 넘어선 가상공간까지 연결하는 공간 확장의 개념으로 발전
- 모빌리티 플랫폼사들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주력하던 차량공유를 넘어서 대중교통·배달·대리운전·마이크로 모빌리티·주차장·화물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있음

■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여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 기존 교통 서비스에 정보통신 기술(ICT)과 플랫폼,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인프라를 전면 적용하여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들어 미래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 조성

■ 광주는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평 조성으로 모빌리티 특화도시 구축의 기반 확보

- 광주는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미래차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생산, 연구개발, 업무, 주거, 상업, 환경 기능을 포함한 미래 융복합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사업대상지는 주요 교통거점시설인 송정역(KTX)을 중심으로 시외교통인프라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주변과 연계 가능한 교통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 주요 교통 허브인 터미널, 공항, KTX역이 모두 사업대상지와 근접한 거리에 있으며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 모터스가 위치한 빛그린 산단과 연계해 있음
- 외곽순환도로, 빗고을로, 무진대로 등 차량을 통해 승용차로 통행하기 용이한 환경이며, 도심 내 모든 권역을 차량으로 30~40분 내로 통행이 가능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은 시내 이동 시 활용되는 주요 수단으로 시민 이용만족도는 광역시 기준 중상위권에 속하며, 시외 이동수단으로는 버스가 주를 이루었으나 KTX 용산, SRT 수서 개통으로 인하여 철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도시문제 도출 및 미래도시 구현 방안

- (대중교통) 아직 미개발지인 신규산단 인근은 출·퇴근시간 외에는 이동 인원이 적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대상지 인접의 빛그린국가산단을 전담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많지 않음. 따라서,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해결방안) ① 친환경 자율주행기반 지상·항공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② 기존 지상 중심 교통에서 항공교통 시스템에 기반한 항공여객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항공교통 이용한 도심 이동 효율성 극대화, ③ 자율주행 전용도로 주행을 통한 여객서비스 제공
- (주차공간) 인접 빛그린산단 내 생산 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주차 관련 문제 발생, 공장 내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무분별한 길거리 주차 문제 발생. 산단 내 주차공간 협소로 대형 물류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등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신규 산단 개발시 검토필요
 - (해결방안) ① 차량충전·환승·공유서비스 제공 가능한 스마트 지능형주차장 보급 확대, ② 개인·대중교통이용자들에게 지능형주차시스템 서비스 제공
- (물류이동) 대중교통수단 및 물류이동 수단에 대한 개별관리로 인한 교통 및 물류 이동수단에 대한 네트워크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운영시스템으로 인한 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저하
 - (해결방안) 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교통 및 물류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② 교통수단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환승 편의성 및 이동 편의성 증대, ③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운영을 통한 교통혼잡 감소 및 물류흐름 최적화

■ 미래 도시교통의 모델 제시 및 확산을 통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 광주는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한 미래 도시교통의 모델 제시 및 확산을 통하여 수요자 관점을 충족하며 도시 여건을 반영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지속 가능한 새로운 모델 개발을 통해 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

■ 글로벌 모빌리티 도시 구축

-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는 모빌리티 도시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등 도심 교통수단 플랫폼에 연계하고 교통정보 수집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등 지능형 모빌리티 환경 구축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함

■ 윤석열 정부 모빌리티 산업육성 정책

- 윤석열 정부는 모빌리티 산업 및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생태계 마련 등 성장기반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를 통해 모빌리티 신산업으로의 강국 도약 비전을 밝힘

- 국토부는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120대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이행하고자 하며, 자율주행, UAM, 모빌리티 도시의 3부문의 시기별 과제를 제시하고 확대를 계획함



- 진국 일반산업단지 : (자율주행 핵심 부품 제조) 자율차 부품 개발 및 실증 기능 및 실시간 협력 생산 실증 등 응용분야 특화
-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 (자율주행 인증평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특화 지원시설에 기반한 자율차 부품 인증/평가 분야 특화
- 미래차 신규 국가산업단지 : (자율주행 실증) 무인 물류 차량, 디지털 트윈 등을 이용한 실시간 협력 생산 기술 개발 등 자율차 기술 활용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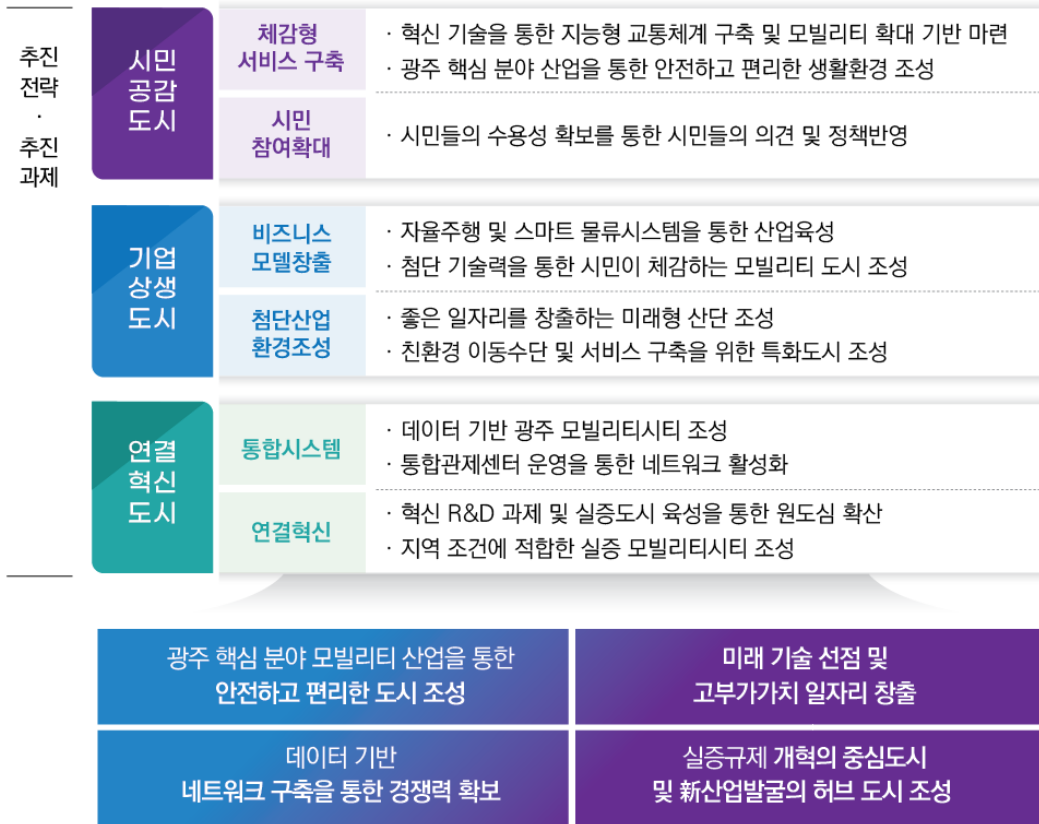
3. 비전 및 추진방법

■ 비전 및 목표



■ 광주광역시 모빌리티 산업육성 정책

- (민선8기 공약)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으로 대변되는 모빌리티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탈바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운동 일원(약 100만평)에 전기차·자율주행·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의 모빌리티 인프라와 관련 기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모빌리티 산업 기반 확보 및 생태계 구축
 - 모빌리티산업 전환에 대응해 광주경제의 중심축인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경쟁력 있는 선도 기반 마련
 - 광주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점 산단
- 광주 자율차부품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품 전용산단인 진국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220만평)을 자율주행차 부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미래자동차 대전환 대응 및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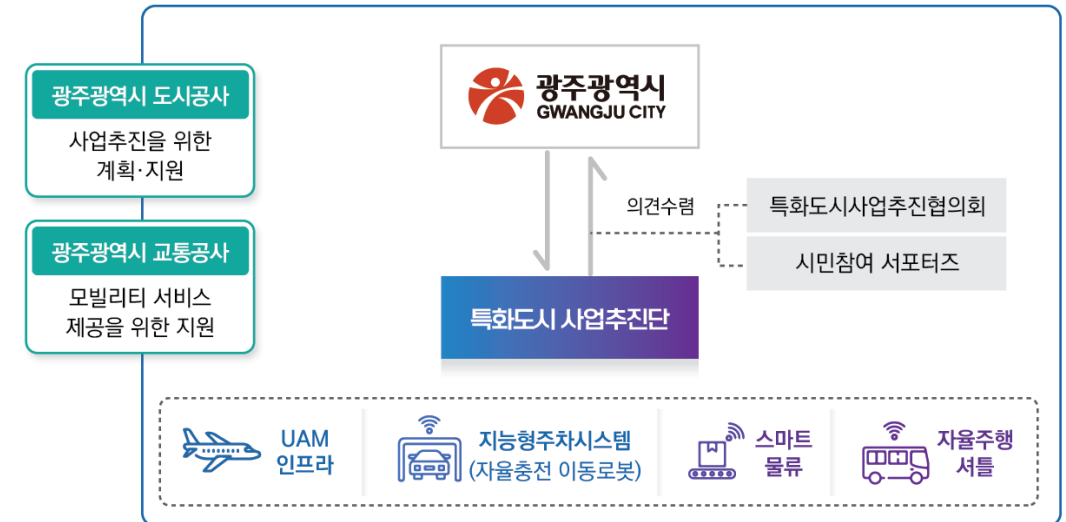
■ 단계별 추진계획

- 지속 가능한 광주 모빌리티 특화도시 운영을 위한 3단계

단 계	추진내용
1단계 (도입기, '24)	모빌리티 특화도시 계획수립 및 체계구축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전략별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예산 계획 확보노력
2단계 (성장기, '29)	모빌리티 특화도시 인프라 조성 및 실증단계
	전략별 세부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안전성 검증 및 적정 안전기준 제시
	시험 및 실증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추진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연계방안 마련
3단계 (성장기, '32)	특화도시 운영 및 응용분야 확대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 지원
	모빌리티 특화도시 운영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추진
	인근산단 및 타 지역 특화도시로 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사업의 전문화 추진체계 제공

■ 추진체계

- 지자체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UAM, 지능형 주차시스템,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셔틀 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안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 모빌리티 정책이슈

■ 도심항공교통(UAM)

- (도입배경) 대상지인 미래차 국가산단 및 빛그린국가산단은 도심지(KTX역)와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로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체계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교통 혼잡이 빈번하여 대체 교통수단 검토 필요
 - 향후 신규산단은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빠른 배송이 필요하고 바이어(Buyer) 방문, 응급환자 이송 등에 대비하여 UAM(도심항공교통) 도입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필요
- (도입방안) 국내·외(지역기업포함)에서 개발된 개인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에어택시(Air Taxi) 등 비행안전성이 인증된 기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 (특성) 서비스 제공 전 항로 및 비행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 추진, 기체 경량화 및 전기추진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활용방안) ① UAM 서비스 도입을 통한 미래차 국가산단 및 빛그린산단 내 화물 운송, 이동인구와 외부방문객 등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UAM 체계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② 향후에는 광역교통망인 광주송정역(KTX)을 중심으로 대상지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인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무안국제공항, 서남해안 도서지역과 서울, 대구, 부산 등 호남권 항공 모빌리티 거점 확대

- (인프라 위치) ① 광주송정역(KTX)에 버티포트 1개소, 미래차 국가산단에 버티스탑 1개소, ② 광주 군공항 장주비행구역과 이격거리 최소 2km 이상
- (인프라 목적) 수도권과 연결된 고속철도 정차 및 광주 도심지와 연결되는 지하철역을 보유한 광역교통망의 중심지인 광주송정역(KTX)에 버티포트를 구축하여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니즈(needs) 충족
- (인프라 내용) ① 도심 내 UAM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저고도 무인비행체 교통관리 체계구축(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 스마트 물류

- (도입배경) 다수의 공장부지 유치예정지로 많은 물류이동이 예상 됨, 스마트 물류시스템에 최적화된 형태의 목적기반차량을 운행
- (도입방안) 자율주행 전용도로 구축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한 운행, 총 7개소의 물류승강장 설치, 총 물류차량 20대 운행(대형 4대, 중형 6대, 소형 10대)
- (특성) 스마트 물류시스템에 최적화된 형태의 배송캐빈을 운영, 화물의 특성에 따른 3가지 형태의 차량 적용 가능한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단위 모빌리티 제공
 -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최적화된 형태(자동 물류 하차를 위한 상부 개폐 등)의 배송 캐빈을 운용하고, 화물의 특성에 따라 3가지 형태(1톤, 3톤, 8톤 적재)의 차량을 적용하여 적재적소 운반을 가능토록 함
- (활용방안)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기반으로 지능형 물류 모빌리티 및 목적기반차량을 이용하여 단계별 미래차 부품, 모듈, 완성차 공장의 물류를 운반하는 순환형 물류이송체계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인프라 위치) 광주광역시 신규지정 국가 산단 일원
- (인프라 목적) ① 다양한 물류이동(자동차 주요 입주품목) 및 부품에서 완성품의 일괄 물류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체 공정의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함, ② 이동의 신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물류승강장 설치
- (인프라 내용) ① LDM, RSU, CVIB, CCTV, 차량 내 단말, 초저지연 영상장치 등을 이용하여 산단 내 물류 이송 상황을 관제하고, 이를 통해 물류의 종류, 저장 위치, 장소 및 설비 변경에 따른 실시간 능동적 대응 체계 구축, ② 자동 물류하차 및 이송, 직원통근 셔틀을 위한 승강장 구축

■ 지능형 주차

- (도입배경) 산단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가 성행함에 따라 교통혼잡문제 및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 친환경 차량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부족 및 충전 대기시간 문제 다수 발생
 - 제한적인 산단 부지 및 주차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차타워시설과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자동충전·주차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단 내 충전 및 주차난 해소
- (도입방안) ① (차량무인이동로봇) 기 개발된 차량무인 이동로봇을 활용한 주차타워 특화 자율주행 주차로봇 개발, ② (고정식자동충전로봇) 기존 고정식 충전기와 연계할 수 있는 자동충전지원 로봇 개발, ③ (이동식충전로봇) 국내 이동식 전기충전로봇 개발 업체 발굴 및 이동식 수소충전로봇 개발
- (특성) ① 주차장 차량 진입 시 차량무인 이동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주차타워에 입고·출고가 가능하며, 충전 요청 시 고정식 충전소와 이동식 충전 로봇을 활용하여 충전 서비스의 다각화 지원이 가능함, ② 자동충전 로봇은 고정식 전기 및 수소 충전기 한계극복을 위한 이동식 또는 자동식 자동충전 로봇으로 충전구 자동개폐장치 및 자동충전 서비스 제공, ③ 차량 무인이동로봇 충전 및 주차 편의성 제공을 위한 무인 차량이동로봇으로 자동충전 서비스, 주차타워 자동 입/출고 서비스를 제공
 -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주차장 내 각 시설로 이송 가능한 자율주행 이동체
- (활용방안) ① 통합관제시스템구축을 통한 오토발렛파킹시스템-(이동체/자율주행이동차등)을 이용하여 이동-충전스케줄 관리시스템 이용가능, ② 산단 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차타워설비와 함께 주차시설 이용자의 차량 주차 및 충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 충전 및 이동로봇 활용
- (인프라 위치) ① 산단 진출입로 2개소 (UAM 버티포트와 연계가 가능한 인접지 1개소 포함), ② 산단 중심지 1개소, ③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아파트는 지능형 주차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음)
- (인프라 목적) ① 산단 방문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산단 진출입로 및 중심지에 총 3개소를 구축하여 방문자나 근로자의 지능형 주차장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활용성 극대화, ② 동편 1개소는 지상·항공 융합 버티포트 인근에 구축하여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의 연계성 극대화
- (인프라 내용) ① (주차관제시스템) 산단 내 여유 주차타워 안내, 주차 공간 예약, 주차/충전 로봇 유도시스템, 차량공유 서비스 및 차량 안전관리 등의 주차 관련 제반사항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② (주차타워입고/출고유도시스템) 주차장 내 시설(전기/수소충전소, 주차타워)으로의 효율적인 진입/진출을 위한 유도/제어 시스템 구축, ③ (자동충전시스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의 충전 시설 유도/제어 및 충전 후 주차타워 입고/출고 시스템 구축, ④ (에너지활용) 주차타워 내 에너지저장장치 및 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한 ESS 기능 구현 및 전력거래 수익창출 및 도시전력 지원



■ 자율주행서틀

- (도입배경) 미래차 국가산단의 핵심 교통수단인 항공 모빌리티(UAM) 연계 산단 내 모빌리티 수단으로 도입하여 차량이 없이도 자유로운 이동 보장
 - 산단 내 출퇴근 차량 및 화물차 등의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서틀 및 공유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수단 필요
- (도입방안) ① (자율주행서틀) KAMO 운영 실증 기반 수소바이모달트램 형태로 서틀 개발, ② (PBV) 지역 특장 기업 개발 PBV활용 다양한 서비스 캐빈 개발, ③ (PM) 기 보급 활성화된 PM 활용 (충전/파킹 Zone 지원)

* KAMO: 100kW 모터, 42.3kWh 배터리 적용 자율주행서틀 (한국자동차연구원)
- (특성) 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 및 시간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운행 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모빌리티, ② 자율주행 전용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바이모달 모빌리티 및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 ③ (자율주행서틀) 일반도로(수동운전), 전용선로(자율주행)이 모두 주행 가능한 친환경에너지기반 대단위 모빌리티, ④ (PBV) 산단 및 지역 방문 목적에 따라 공유형 오피스, 스마트 스토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목적기반형 모빌리티, ⑤ (PM) 산단 내 지능형 주차타워 및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 운행이 가능한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 (활용방안) ① 산단 내 도심항공 모빌리티 및 지능형 주차타워 서비스와 지상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계한 지상·항공 융합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② 서측으로 인접한 빛그린산단과의 연계 및 동측으로 인접한 교통거점과의 연계가 가능한 모빌리티 수단 제공 및 근로자, 산단 방문자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인프라 위치) ① 산단 내 R&D, 산업, 복합 및 주거용지를 기점으로 함, ②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도로 및 노선 구축,
- (인프라 목적) ① 지상/항공 융합 버티포트 및 지능형 주차타워 서비스 연계를 위한 자율 주행 서틀 노선과 인근산단 및 교통거점 연계를 위한 일반도로 운행노선을 운영, ② R&D 산업/복합 및 주거용지간 순환자율주행 노선 구축(8km구간), ③ 신규 국가산단 및 빛그린국가 산단 일반주행 지원노선 구축(4km구간), ④ 신규 국가산단 및 광주송정역 일반주행 지원노선 구축(10km구간)
- (인프라 내용) ① (교통거점연계) 기존 일반도로를 활용한 지역 인접산단 및 교통거점과의 교통서비스 인프라 구축, ② (자율주행전용도로) 바이모달 모빌리티의 산단 내 일정 구간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 ③ (충전인프라) 산단 주요 핵심시설 내 친환경에너지 활용 모빌리티 대응 충전인프라 구축, ④ (버티포트연계) 지상/항공 모빌리티 연계를 위한 환승 시스템 및 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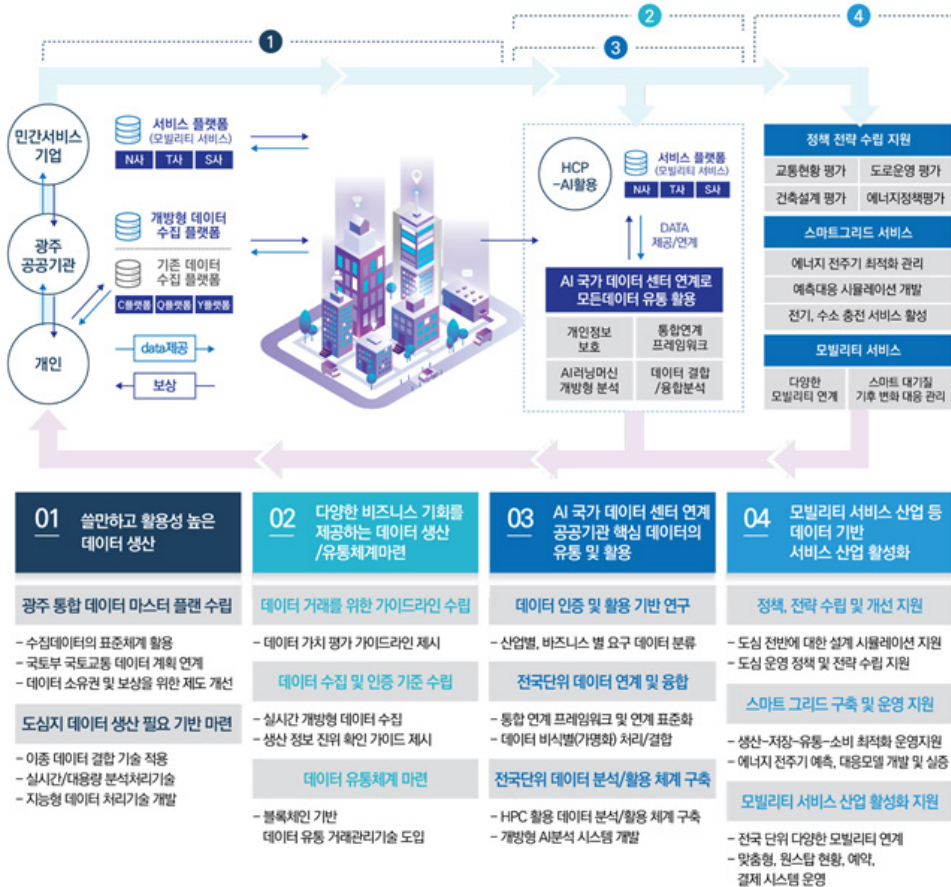
5. 통합관제

■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통합 방안

통합관제 시스템		추진계획	
		핵심기술요소	파트너십
3	Si기반 초연결 모빌리티 중심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서비스	- 디지털 트윈서비스 - 모빌리티 기반 융합서비스 운영 - 통합관제 플랫폼 운영 현대·기아자동차 AWS cloud, 메가존 A2Z, 제이카 스프링클라우드
2	디지털 트윈 (가상화)	디지털트윈 가상실증 데이터 통합 관제기능 서비스연계	- 디지털트윈 실증 - 모빌리티기반 융합서비스 개발 -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CJ 올리브네트웍스 KT, 유아이네트웍스 티벨
1	데이터 수집 (산단)	모니터링 센서 (IoT) 디지털트윈	- 모빌리티기반 도심지DB화 - 철거현장가상화 - 디지털트윈 기술개발 에스오에스랩 인포웍스

● 광주 데이터 허브 운영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 데이터 기반 공공관리 서비스 활성화 및 관련 민간기업 서비스 구축·운영
- 다양한 데이터 제공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6.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 (도심항공교통) 광역 항공교통 허브 역할 수행 및 광주형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선제적 실현을 통한 도시교통 사각지대 해소, 시간·비용 절감 극대화
 - 도심항공모빌리티의 운항 안전성, 편의성/연결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기체, 인프라, 인력 관리, 운송서비스 등의 유기적 연계성 극대화 및 이를 이용한 도심 지상/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

● (지능형 주차) 안내/주차/충전 통합 주차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

- 효율적이고 편리한 수요 맞춤형 통합 주차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차면 공급확대 한계 극복
- IoT 도입을 통한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능형 주차 서비스 활성화 및 주차면 이용효율 증대
- 모빌리티의 대중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으로 인한 교통체증,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 해결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실현

● (지능형 주차) 모빌리티 통합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경쟁력 강화

- 주차공간 및 도시 자원의 효율적 활용성 극대화
- 지상·항공모빌리티 서비스 연계 및 주차공유 서비스를 통한 주차수요 분산 및 혼잡지역의 차량 수요 저감
- 주차에 취약한 여성 및 고령운전자 편의성 증대 및 주차관리 투명성 확보
- 주차관련 솔루션/서비스의 전방산업 및 카메라, 주차보조시스템, 차량인식, 영상인식, 자율주차 등의 후방산업에 대한 지역적 경쟁력 강화

● (스마트 물류) 효율적 물류 체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 순환형 물류 운송 서비스를 통한 지역 내 미래차 부품 기업, 모듈공장 및 완성차 공장 간의 물류 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 물류비용 저감으로 제품 단가 절감 및 제품 경쟁력 향상

●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기술 특화도시로의 도약

-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함으로써 완성차의 자율주행 기능 사용과 자율주행 셔틀 도입 등 자율주행 기술의 활발한 이용을 촉진
- 현재 기술로 실현 가능한 물류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국내 최초로 구현
- 자율주행 셔틀 활성화로 자가용 없는 도시 구현
- 자율주행 전용도로, 자율주행 셔틀 등을 통한 자율주행 차량 활성화로 산업단지의 자율주행 기술 특화도시 달성

● (스마트 물류) 관제센터 연계를 통한 안전한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 물류 운송 관제센터 운영 및 물류 운송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물류 이송체계 구축 가능
- 실시간 모니터링과 비상시 원격 제어 기술로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산업 전주기 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산업 활성화 기대
 - 소부장부터 완성차에 이르는 자율주행 차량 제조 및 서비스 실증까지 전 분야를 망라하는 원스탑 자율주행 산업 허브 형성
 - 자율주행 산업 관련 전 분야의 기업과 자원, 인프라가 밀집됨에 따라 공정 및 기술의 시너지 효과 발생
- (자율주행 셔틀) 데이터 기반 초연결 서비스 발굴 및 운영으로 신산업 활성화 기대
 - 데이터 기반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한 타 분야와의 초연결 서비스 발굴 및 운영 기대
 - 광주 데이터 허브 운영을 통한 관련 민간기업 유입 및 데이터 시장 활성화 기대
 - 개방형 데이터 생산 및 구축된 유통체계를 통한 다양한 산업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 기대

■ 시사점

- (도심항공교통) 관련사업 및 중앙정부 사업과 정합성, 통합성,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와 거버넌스 혁신의 강화 필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 인·허가 및 안전관리,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 등의 지방정부의 역할 재고
 - 공정한 운영사업 및 보험제도, 서비스·안전 비례수익보장장치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심항공 생태계 조성 유도
- (지능형 주차) 지능형 주차시스템을 넘어 도시교통 통합운영을 위한 연계·통합적 관리 운영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단계적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
 - 서비스 기반 확보를 위해 지능형 주차장을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이용방법 및 요금지불에 대한 이용자 이해도에 따른 제약요소 해결을 위한 스마트앱 및 효과적인 지능형 주차 관리체계 지원
 - 사업수행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질 제고와 활동량 증대를 위하여 리빙랩과 같은 공공과 민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공급 중심의 주차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시민참여 활성화, 민간부문의 참여유도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도입 필요
- (스마트 물류) 관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광주광역시시는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광역시 중 유일한 완성차 기업 2개사 포진)
 - 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모듈-완성차 공장을 잇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조성을 통해 각종 부품 및 모듈 기업의 지역 내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

- (스마트 물류) 지역 내 부품/모듈/완성품으로 분류되는 공장부지 조성
 - 자동차 특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 빛그린 국가산단과 함께 미래차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화된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확장
 -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등 미래차 산업을 집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빛그린산단, 진곡산단 등과 연계한 연관 산업들을 융합해 미래차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효과 도모
- (스마트 물류) 지역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
 -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도약하여 미래차 산업의 부품 생태계를 활성화
 - 자율주행 전용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곳곳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실증이 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미래차 산업 도시 조성
-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 연계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교통망 구축
 -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라스트 마일 연계를 통하여 사용자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전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교통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자율주행 셔틀) 광주송정역 ↔ 국가산단 간 UAM 및 자율주행 병행 운영 검토
 - 높은 비용에 비해 운송 가능한 고부가가치 물류의 부재 및 인적 자원 운송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 해당 이슈로 인해 UAM, 자율주행 셔틀 병행 운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원활한 운송 서비스 제공과 함께 UAM 서비스 사용화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율주행 셔틀) R&D센터 연계를 통한 AI & 데이터 서비스 관련 유관 기업 육성
 - 통합관제플랫폼 내에 R&D센터 구축 및 기업 입주를 통해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사업화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
 -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광주 지역산업 발전 촉진 및 이를 통한 유관 기업의 신산업 진출 기회 제공의 확산 효과가 기대됨

02

지역과학기술 칼럼
COLUMN지역산업 관점에서 바라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부산연구개발지원단

지역과학기술 칼럼(COLUMN)

지역산업 관점에서 바라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부산연구개발지원단 정형구 단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기록 대상은 그리 달갑지 않은 합계출산율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과 2010년에는 각각 1.48명과 1.23명으로 그나마 1.0명 이상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발표되며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37위인 스페인도 1.19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과 전남이 0.97명, 강원과 충북이 0.89명 순으로 높고, 부산은 0.66명 서울은 0.55명 순으로 낮았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들과 가장 낮은 지역들을 비교해 보면 인구밀도와 인구감소 간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맬서스는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하였다. 토마스 맬서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인 1766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로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현상들을 근접하게 관찰할 수 있기에 가능한 말이 아닌가 싶다. 이에 우리나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현상을 산업성장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까지 농림어업이 전체 경제의 4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 제조업은 겨우 10%를 넘는 수준이었다. 농림어업이 주를 이뤘던 시기에는 농지, 산림 및 해양 자원이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인구는 전국 방방곡곡에 분포하였을 것이다. 1960년대 들어서 신발과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도시 근처의 산업단지는 농어촌 인력을 계속적으로 흡수하면서 부산과 대구 등 주요 도시들의 대도시화를 촉진하였고, 1970년대 초 추진한 중화학공업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까지 울산·여수(화학), 군산(경공업), 포항(철강), 부산·울산·거제(조선), 온산(중화학) 등 공업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하였다. 1990년대 이후 기술개발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IT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집중하였다.

앞서 설명한 산업 발전 과정 중 토마스 맬서스가 말한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 현상은 1990년대 중반으로 추측된다. 철강, 화학, 조선 등의 거대 장치산업은 산업 특성상 근로자가 산업시설 인근 도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어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분포되었지만, 1990년대 말 섬유, 신발산업 등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지역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력 이동이 발생하였다. 사실 이 시기에는 전 세계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이 등장하고 보급화되면서 우리들은 대도시나 거점 산업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 어디에서든 여유롭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전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은 더욱더 큰 도시인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일극화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크게 IT 및 지식서비스 산업 전환의 실패에 따른 기술개발 인력 이동 및 집중의 스노우볼 효과로 예상한다.

클러스터 연구를 선도해온 마이클 포터의 연구에 따르면 클러스터는 첨단기술과 하위기술, 제조업, 서비스업이 경쟁과 협력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성을 지니며, 고부가가치 생산을 중시하는 혁신적 산업 분야일수록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정보교류 등의 지리적 집적성이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사실 거대 장치기반 제조업의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생산 의사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그 변동이 크지 않으나, IT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사람들간의 교류, 의사소통, 의사결정의 빈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대도시 거점이 소도시 거점으로 스플릿 되지 않고 오히려 거대 일극화 도시가 만들어지고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이 시작되지 않나 싶다.

사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현상은 인식변화, 일자리, 문화 및 교육 인프라 등 너무나도 복잡한 원인들이 얹혀있어 산업 성장과 산업 특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지역 관점에서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될지 그 지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이다. 인구감소도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 문제이지만 그 원인에 대한 선후 관계를 따져 본다면 지방소멸 현상을 막는 것이 시급한 문제 아닌가 싶다. 우리는 흔히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논의하지만 지방소멸은 출산율 저하가 아닌 사회이동 현상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이 주원인으로 생각된다.

지방소멸이라는 어려운 문제의 명확한 해결방법 제시는 어려울 것 같아 제언 정도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번 정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추진한다.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격차 줄이기의 방향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산업, 즉 지역의 일자리이며 어떠한 일자리 이냐이다. 위에 언급한 사회이동이란 사회 계층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다. 즉 우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도 그 사회적 위치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어야 다시 지역 거점 도시와 소도시로 사람들은 이동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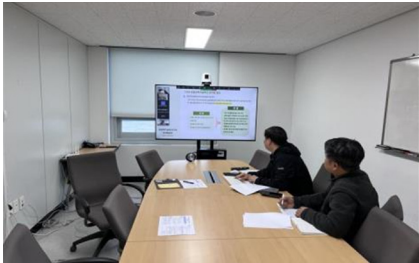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 2.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 3.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2024년 강원과학기술혁신연구회 오리엔테이션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2024년 4월 3일 강원과학기술혁신연구회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4개 분과별로 총 23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강원연구개발지원단 및 강원과학기술혁신연구회 소개와 연구회 분과별 이슈 주요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고로, 2021년부터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강원과학기술혁신연구회 분과를 총 4개 분과(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정책, 바이오헬스, 융복합신소재, 첨단IT 융합)로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이번 분과별 이슈 발굴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 정책의 경우 AI-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리빙랩 활용, 상가 공실, 도박 문제 등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이오헬스 분과의 경우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개발과 브랜드화, 미래 유망 산업 연구기획, 최신 기술 활용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스마트팜 특별법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활용이 주요 이슈로 발굴되었으며 융복합신소재분과는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센서 개발, 초고온 부품용 소재 및 적층 제조 기술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첨단IT융합분과는 AI와 IoT 기술을 활용 산업 현장내 안전 강화 기술,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자연산 송이 인공재배, 커뮤니티 기반 만성질환 노인 환자 맞춤형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등이 이슈로 발굴되었다.

해당 이슈 도출을 기반으로 강원과학기술혁신연구회는 올해 11월까지 2회 이상 분과별 회의를 거쳐 이슈페이퍼와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다.

AI 정책 워크숍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AI 산업, 기술, 정책 동향 파악 및 경기도 AI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AI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AI 정책워크숍은 3월 13일(수)부터 4월 3일(수)까지 매주 수요일에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라운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안성원 AI정책연구실장이 ‘생성형 AI로 인한 변화와 향후 전망’(3월 13일) △이광용 네이버 AI랩 정책전략이사가 ‘초거대 AI 구축 현황과 우리의 대응 전략’(3월 20일)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미중 AI 경쟁 동향과 시사점’(3월 27일)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언어 인공지능 기업 활용 사례’(4월 3일)를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AI 정책을 발굴하여 경기도에 제안을 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gi_view.do?BS_CODE=s026&number=3201

4차산업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4차산업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4월 24일(수)에 개최하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바이오산업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 경기북부 메디컬-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 △ 경기북부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 △ 경기북부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계획과 세부 과제 수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당 연구는 향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북부 지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https://www.ggc.go.kr/site/main/xb/lwmkr/lawmakerpressrelease/276090>

"경남은 스마트물류 장비·기술산업 육성 최적지"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29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의 성공적인 개장 기념으로 ‘경상남도 물류 장비·기술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과 도내 물류장비 제조업체 관계자, 물류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남 중심 물류 장비·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5일 개장한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진행신항 7부두는 동원글로벌터미널이 운영 중인 완전자동화 무인 컨테이너부두로, 두산에너지빌리티와 국내 중공업회사에서 제작한 자동화 크레인인 현대로템·네덜란드 VDL사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한 무인이송장비(AGV)가 설치된 최초의 스마트항만으로 평가된다.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도 국내 기업의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규모를 국내 점유율 90%, 세계 점유율 10%까지 확보하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스마트항만 개발에 직접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성공적인 스마트항만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경남의 물류 장비·기술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선일 동원글로벌터미널 팀장의 성공적인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사례 ▲박정호 두산에너지빌리티 수석의 자동화 트랜스퍼크레인 구축사례와 기술고도화 방안 ▲손정민 싸이버로직텍 상무의 완전자동화터미널 운영시스템 현황 ▲박용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팀장의 항만장비 분야 정부 R&D 투자현황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박병주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김승철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연정훈 부산항만공사 항만연구부장, 김민영 케이알엔지니어링 이사, 김진광 한국폴리텍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경남이 스마트물류 장비·기술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포럼은 토론자와 방청객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은 진해신항 개발과 가덕도신공항 등 스마트 물류산업의 최전선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제조산업과 융합을 통해 경남을 스마트물류 장비·기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news1.com/view/?id=NISX20240429_0002717286&cID=10812&pID=10800

경상북도 영리도 주도 R&D 연구회 킥오프 회의 개최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5월 17일(금) 지역 혁신 주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디테크·영리더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주도의 초격차·신격차 기술 확보 및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경상북도 영리더 주도 R&D 연구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 현안 및 국가/지자체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신규 R&D사업 발굴 및 연구개발지원단 연계 신규사업 등 경상북도 과학기술과, 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경북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상북도 영리더 주도 R&D 연구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혁신주체간 공감대 형성 및 소통체계 강화로 지역현안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 유치를 통한 혁신기술·인력을 집적한 디테크 거점 육성의 기회로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중점 신규사업 선정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4월 광주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선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으로써 연구개발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중점분야 및 지역 핵심 신규사업(예산 연계사업)을 도출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 내 혁신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기술분야인 AI+X,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과제에 대한 제안자 발표평가를 진행하였다. 금번 수요조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는 최종적으로 1개의 핵심과제와 2개의 후보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방비 매칭 여부 등을 논의 후 연구개발지원단에서 해당과제를 대상으로 세부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중점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동향분석 플랫폼 운영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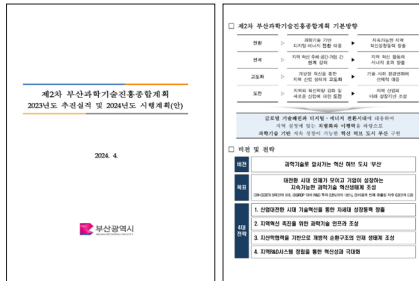
DTIS MONTHLY PICK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6대 과학기술 분야(미래모빌리티, 에너지, ICT·SW, 바이오헬스, 로봇, 과학기술정책)와 관련하여 격월로 각 기술분야별 담당연구원과 기술전문가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기술전문가가 선정한 이슈페이퍼, 기술동향 등의 보고서를 리뷰하고 이를 정리한 서평을 작성하여, 분야별 과학기술 관련 현안과 이슈 등 동향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이를 통해 내부연구원들의 과학기술분야 전문성의 강화를 유도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제공하는 서평과 보고서를 지역 산·학·연 R&D 주체가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미래성장동력 신사업 발굴과 기획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향정보는 지난 3월을 시작으로 미래모빌리티·에너지·ICT 및 SW는 홀수월, 바이오헬스·로봇·과학기술정책은 짝수월에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는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S) 내 Monthly Pick에 업로드 된다. [참고사이트](http://www.dtis.re.kr)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dtis.re.kr)-정보-Monthly Pick

제2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3년도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시와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제2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년~’27년)」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3년도 과학기술 분야 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의 원년을 목표로 4대 전략(△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지역혁신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 △개방적 순환구조의 인재 생태계 조성, △지역R&D시스템 정립) 및 33개 중점 추진과제에 총 5,815억원(국비 3,479억원, 시비 1,543억원, 기타 7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은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하였으며, 향후 ’25년도 부산시 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 활용함으로써 지역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 이차전지산업 육성 포럼’ 개최

전남연구개발지원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난 21일 광양경제청 3층 회의실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광양만권 이차전지산업 육성 포럼은 기업체·학계·공공기관 등 이차전지 관련 전문가들과 이차전지에 관심있는 도민·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개청 20주년을 맞아 ‘이차전지 소재 기술과 차세대 재활용 기술 육성’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이차전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전남대학교 박찬진 교수의 NCM 배터리 중심 전남 이차전지 소재 발전방향을 시작으로 △중주기 에너지 스토리지용 금속-소금전지(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정기영 책임) △전고체전지 소재 및 공정(한국전기연구원 박준호 팀장)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기술 현황 및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우중제 센터장)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동향 및 향후 전망(포스코퓨처엠 김정한 센터장) △이차전지산업 현황과 투자유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상훈 책임위원)가 발표되었으며, 이어 청중들과의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차전지 소재 원료인 리튬부터 배터리 재활용, 이차전지산업 현황 및 투자유치 전망까지 이차전지에 관한 폭넓은 스펙트럼의 강연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양만권이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ajunews.com/view/20240322140539889>

세종시, “미래전략산업·인재의 도시로 성장 노력야”

세종연구개발지원단



* 세종내일포럼 개최 모습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의 지역 산업 육성 및 장기발전 전략으로 양자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추진하고 청년층 전문인재 육성 기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됐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승원 경제부시장, 연구기관 전문가, 지방공공기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종내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시와 연구기관, 지방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 산업의 육성을 통해 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지역산업 현황 및 산업육성 방안’을 주제로 세종테크노파크 윤석무 단장이 발제에 나섰다.

윤석무 단장은 세종 지역 미래전략산업 육성 방안으로 초격차 미래 신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술인 양자 분야에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세종시는 인구,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단장은 “타 지자체에 비해 혁신 자원과 산업 기반이 취약한 세종시는 양자기술과 같은 퀀텀 점프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인 ‘세종시 장기발전 전략’에서는 김주훈 전 KDI 부원장이 발제를 통해 세종시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주훈 전 KDI 부원장은 우선 세종시 여건으로 행정수도이자 고품격 명품 도시로 이미지를 갖추고 거주 공간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미래 비전은 전문인력을 육성·공급하는 ‘인재의 도시’에 있다면서 전문인력을 수도권과 동남권, 서남권으로 공급하는 공급기지로 성장시키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주훈 전 KDI 부원장은 세부 시행과제로 청년층 전문인력에 대한 장기 주택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공실 점포를 스타트업 사무실로 전환시켜 창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션별 발제에 이어서는 참석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세종시의 지역산업 육성 방안과 장기 발전 전략을 다듬는 과정도 진행됐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세종내일포럼을 통해 산업, 도시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종시 미래산업과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최적의 비즈니스 도시 세종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점점 구체화해 나가야 하는 자족기능 골든타임”이라며 “앞으로도 세종내일포럼을 지속 개최해 시장 현안과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고사이트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680>

2. 지역 맞춤형 R&D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혁신 구현을 위한 마중물 & 기획뱅크 R&D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2024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마중물 & 기획뱅크 R&D 선정평가위원회를 지난 3월 19일(화)부터 20일(수)까지 춘천 상상마당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지역주도 R&D 마중물 지원 사업은 총 54개팀이 지원하여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팀을 최종 선발하였다. 선정된 10개 팀은 6천만원~8천만원씩 사업비가 차등 지급되었다. 마중물 R&D지원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혁신 연구역량을 높이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내 기업의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R&D 기획뱅크 사업은 총 21개팀이 신청하여 12개 팀을 선정하였다. 지역 현안에 대한 사업 기획 지원으로 지역 아이템의 사업화와 중앙 정부 과제 수주를 돕고 지역 연구개발을 활성화가 주 목적이다. 기획뱅크 사업은 중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기는 2천만원, 단기는 8백만원을 지원되며 중장기는 5개팀이, 단기는 7개 팀이 선정되었다.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며, 강원특별자치도 혁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산업에 맞는 R&D 기획 뱅크를 사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원전산업 재도약”...창원 원자력 기업협의회 첫 정기회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32개 창원지역 원자력산 관련 기업들의 연합모임인 창원 원자력 기업협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가 지난 9일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창원 원자력 기업협의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등 원자력산업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시와 원전 기업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원전기업간 기술개발과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월 2일 관내 원전기업 32개사가 참여해 발족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비영리단체 등록 건 등을 의결했다. 이어, 창원 원전 기업들의 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조합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KOTRA경남지원단 임지훈 차장의 ‘경남 원전기업 수출첫걸음단’ 사업 소개와 전용환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바이오본부장의 ‘SMR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발표도 있었다.

‘경남 원전기업 수출첫걸음단’은 지난해 11월 경남도, 창원시, 원전기업 6개사와 한수원 등이 함께 카자흐스탄과 프랑스 파리를 찾아, 현지 상담회 개최와 WNE(World Nuclear Exhibition)에서 여러 해외 원전 기업과 B2B를 진행했다. 올해는 계약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다.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는 향후 4년간 국비 97억원과 지방비 22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이 개별로 갖추기 힘든 SMR 주기기 제작 장비 도입과 운영으로 생산기간 단축을 위한 자동화 공정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시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지난 2월 관내 원전기업 대표님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발족한 ‘창원 원자력 기업협의회’ 첫 정기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는 기업협의회가 지역 원자력산업 재도약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https://www.nocutnews.co.kr/news/614342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512100358

광주광역시 양자 정보기술 세미나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는 9일 “양자기술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지역 내외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는 양자정보기술과 광주지역 주력산업인 광산업 기반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가치사슬 창출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분야를 이끌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이순철 양자기술단 단장의 「대한민국 양자정보기술의 기술현황과 미래 추진방향」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성 뿐만아니라 국내 양자기술 분야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양자선도기업인 SK텔레콤, (주)우리로, GQT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한국광기술원, 조선대학교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는 광주지역의 지속적인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산업트랜드에 대응하여 기존산업의 확장 방안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양자기술과 관련한 기획을 지속적으로 준비하여왔으나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진입 장벽 등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주의 양자기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은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우리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양자기술 생태계 향상과 양자기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창의융합기획사업” 반도체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대전연구개발지원단



지역 주도 혁신생태계에서는 지역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해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융합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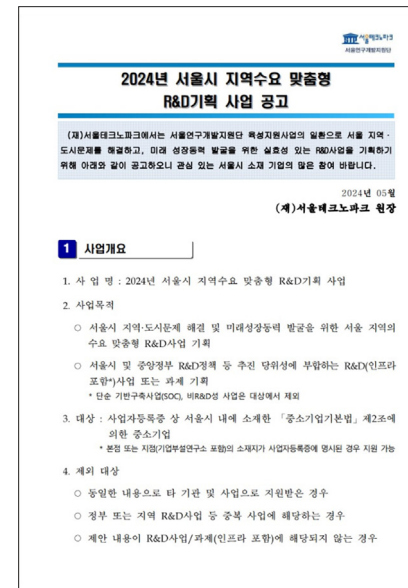
대전시는 지역의 혁신주체 간 융합R&D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전시 자체 “R&D창의융합기획사업”을 추진하였고 “대전형 융합 신산업 창출 특구기술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대덕특구 출연연의 기술 확산과 지역 산업 육성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자체 핵심전략산업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정부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DISTEP는 이번 4월 말 창의융합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전 반도체 종합계획과 반도체 분야 R&D 추진 과제를 수립·발굴하고 과기부 및 산업부 등 정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2024년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 기획 사업 공고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서울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 기획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4년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 기획 사업’을 공고했다.

서울시 6대 핵심산업 분야(로봇, 첨단제조, 창조산업, 인공지능, 핀테크, 바이오·의료, 양자)의 기획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서울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 및 실질적 R&D 기획 내실화를 위해 선정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그룹 구성·운영 및 회의비를 5개 내외의 서울시 내 소재 중소기업에게 지원한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R&D 기획 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서울 지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실효성 있는 R&D 과제 발굴을 촉진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r.kr)-알림마당-기업지원공고

세종테크노파크, 지역산업·과학기술 활성화 신규 연구·기획과제 공모

세종연구개발지원단



* (재)세종테크노파크 조감도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는 2024년 세종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신규 연구·기획과제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은 지역산업과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다.

세종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의 모집분야는 2가지 유형(과제기획 분야, 정책연구 분야)으로 나뉜다.

먼저 △과제기획 분야는 세종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실행과제(인프라 활용 기업지원, 인력양성, 산학연관 연계협력 등)이다. △정책연구 분야는 세종 지역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산업과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과제로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대학, 혁신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개인으로, 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를 통해 총 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활동 기간은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다.

양현봉 원장은 “신규 사업(과제)기획 공모를 통해 세종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역산업·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발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886>

보도자료 세종테크노파크 - 보도자료

울산연지단, 2024년 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 운영

울산연구개발지원단

2024년 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 모집 공고

울산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목적: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최대 75% 이하, 기업부설연구 25% 이상(현금 및 현금보통)
 -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 현업에 종사하는 기업부설연구 10% 이상
 - 지원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과제당 25백만 원 이내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과제당 17백만 원 이내
 - 지원기간: 2024. 06. ~ 2024. 11. (6개월)
- 지원대상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당사내용 공문 참조)
- 공고기간
 - 2024.04.29 ~ 2024.05.24
- 접수기간
 - 2024.05.15 09:00 ~ 2024.05.24 18:00
- 문의처
 - (재)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실 조민정 연구팀 (052-219-0844), 정책국 주필 (052-219-0852)

USIS Platform 바로가기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2024년 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해 지역의 연구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창출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며,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울산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사업기간 내 설립 예정인 기업이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기업 여부 사전 확인 및 현장실태조사 이후 △기술개발 능력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12개 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에 따른 연구개발 자금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해당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9개사의 연구개발 조직(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지원했다.

보도자료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145>

전남TP·서울대, ‘2024 에너지밸리기업-서울대 IEPP’ 워크숍 개최

- 해외진출 ODA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의 장 마련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는 21일~23일 여수 유탑마리나 호텔에서 에너지밸리 기업의 해외진출 ODA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최, 전남TP, 서울대, 한국전력 공동 주관으로 “2023 에너지밸리-서울대 IEPP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IEPP(International Energy Policy Program) 과정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개도국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석·박사 과정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이다.

이 날 워크숍은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장, 전남TP 융합기술지원본부장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IEPP 관계자, 가나, 미얀마,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케냐,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 에너지 기관 공무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 협력과 해외진출 기획의 장이 마련되었다.

금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기업은 15개사로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팜, 수력발전, ESS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첫째, 에너지산업 현장 견학으로 여수 GS칼텍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순천만 ECO발전소를 방문하였으며 둘째, ODA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동신대 이상근 교수를 초청하여 ODA사업 추진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셋째, 참여 국가 현황 및 사업 수요 발표 후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IEPP에 참여하는 개도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에너지밸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여, 3개사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전남TP는 개도국 에너지 정책 전문가와 에너지밸리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과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 (비R&D)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연 2회 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을 추진하여, 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도국 에너지 전문가와 비즈니스 미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TP 융합기술지원본부(본부장 이상엽) 에너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17>

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 사업 본격 추진 결의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는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양일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2차년도 추진을 위한 킥오프(Kick-off)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남·경남·부산 지역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무인이동체 서비스 시장 창출 및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재)부산테크노파크, (재)경남테크노파크, 순천대학교, 동아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등이 참여하여 초광역 연계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 본사업은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서 3개 권역에서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권역을 넘나드는 드론에 대한 관제,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드론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2차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모인 이날 워크숍에는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남도, 부산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사업 컨소시엄, 외부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각 컨소시엄 별로 1차년도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및 2차년도 성과 도출 계획 발표, 초광역 연계 실증과 연계협력 지원 방안 협의 등 2차년도 사업 추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2024년 신규 장비 및 성능 개선 장비의 구축 일정을 공유하였으며, 전남·경남·부산의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를 위한 공통 서버구축과 데이터 공유 서버구축 등 기반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박만복 우주항공산업센터장)는 이날 워크숍에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출범한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실증추진단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이 각자 모든 역량을 발휘하자”며 적극적인 성과도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본 행사 참석자들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홍보전시관을 운영한 고흥군, 전남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등 여러 지자체, 기관 및 기업들의 부스를 참관 하였으며, 드론 관련 최신 기술 정보들을 습득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성 및 인프라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공영민 군수) 관계자는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고흥의 항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드론·UAM 관련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은 “남해안권 통합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인이동체 관리 및 통제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며, 종합적인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 시장 창출과 전국 최대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생태계 조성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no=322935>

친환경·첨단모빌리티 신규R&D발굴 간담회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지난 4월 22일,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친환경 첨단모빌리티 신규 R&D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추진된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및 친환경 첨단모빌리티 분야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참석 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첨단 모빌리티 정책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추진 방향과 해당분야의 신규 R&D과제를 공유하였고,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중앙부처 대응방안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성장과 과학기술을 위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도내 기업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발굴한 국가연구개발과제가 향후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사전 사업기획 기술수요조사 추진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주지역의 R&D 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먹거리 창출, 현안문제 해결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전 사업기획을 추진하였다.

도내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미래먹거리창출형 3건, 기업애로해결형 2건, 지역문제해결형 3건 등 총 8건이 접수되었다.

추후 접수된 8개의 기술수요조사서를 토대로 지역 내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사전 사업기획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지역기업, 연구기관의 신규 사업유치,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 견인에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3. R&D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경남테크노파크, SW 미래채움사업 강사 90명 발굴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가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의 일환으로 7일 ‘SW 강사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새미래행복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및 SW미래채움사업 SW 강사 등 110여명이 참석해 SW미래채움사업의 2024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간담회를 통해 강사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SW미래채움사업은 경상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SW 교육 기회가 부족한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딩,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체계적 SW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경남SW미래채움센터는 김해, 창원, 거제, 거창, 하동, 진주 지역에 센터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SW 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자재 및 콘텐츠 등의 인프라를 제공한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및 선발 과정을 통해 2024년 경남의 SW 교육을 담당할 90명의 SW 강사를 채용했으며 2월 말까지 역량 강화 보수교육을 해왔다.

SW 강사는 3월부터 10개월간 경남지역의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SW 교육 및 경남지역 행사와 연계한 SW 체험 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경남의 SW 교육을 담당할 강사들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SW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도내 SW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etnews.com/20240307000379>

경남TP 경남-네덜란드 방산협력 로드쇼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경남- 네덜란드 방산협력 로드쇼’를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경상남도 방산기업과 네덜란드 기업의 방산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경남TP와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네덜란드 측에서는 방위보안 산업협회(NIDV), 우주항공연구소(NLR), 응용과학 연구소(TNO) 및 방산관련기업 AI Armaments, Hull Vane B.V, The IP Company, Vonk 등이 참가했다.

행사기간동안 네덜란드 대표단은 경남지역 방산업체인 (주)현대로템, (주)한화에어로 스페이스, KAI, (주)휴먼중공업, (주)켄코아에어로 스페이스, (주)수유틱스, (주)경인테크, (주)아이스펙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사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의 방산 제조역량을 결합해 상호보완성 극대화 △기술제휴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방산 역량 강화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연구기관은 국내기관 및 기업과의 방산분야 R&D 및 평가/인증 등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산 부품과 소재들도 국내 방산기업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간 국방비를 늘리며 다양한 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의 시장 확대 측면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경남 방산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내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방산수출지원단’ TF팀의 운영을 통해 도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 말했다.

경상남도는 K방산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남TP 방위산업 본부에 방산수출지원단을 신설하고, 경남지역의 경쟁력있는 방산기업들의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 및 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보도자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1816285314948>

2024년 지역 연구개발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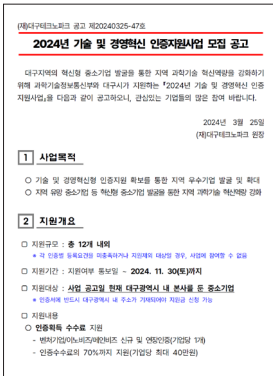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3월 5일 지역 산·학·연 R&D 주체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4년 지역 연구개발사업 통합설명회」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하였다. 행사에서는 각 분야별 전담기관의 담당자 초청을 통해 '24년 정부 R&D 정책 및 혁신방향 설명 및 '24년 과기부·중기부·산업부·대구시 주요 R&D 사업 설명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현장 참가자들에게는 올해 정부 R&D 사업 연간 캘린더와 함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쉽게 설명한 '연구개발사업 길라잡이' 제공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매년 지역연구개발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중앙 및 지역 R&D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R&D 활성화 및 정부 R&D 투자규모 확대, 지역 산·학·연 R&D 주체의 역량강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24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 확보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지역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2024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 신규기업을 모집하고 선정평가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신규 및 연장인증을 도와줄 전문가 자문단과 1:1 매칭을 통해 인증평가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인증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인증취득 기업을 위한 후속지원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도 과학혁신역량 강화 및 R&D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정부연구개발사업 Calendar 제작·배포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산·학·연 R&D 수행주체의 R&D 사업 기획·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과기부·중기부·산업부 등 주요 부처별 연간 R&D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세부 R&D 사업별로 공고·선정평가 등의 일정이 수록된 2024년 정부연구개발사업 Calendar를 제작·배포 하였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제작·배포한 2024년 정부연구개발사업 Calendar가 지역 산·학·연 R&D 수행주체들의 관련분야 정보접근성 제고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공유회와 연계한 제3회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정책포럼 개최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시는 5월14일 과기부-특구재단이 주최한 「지역과학기술 정책 공유회」와 연계한 제3회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개최 하였다. 본행사(1부)와 연계 포럼(2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혁신 R&D 관련 정부 정책 방향 및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성장을 이끌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과학기술혁신 대표 우수성과 교류를 통한 지역과학기술 발전 아젠다를 발굴함과 동시에 지역주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활성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시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된 이번 행사는 정부-지역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속 개최 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556&_ga=2.129649032.560567632.1716783396-1434535859.1716355913

제2회 글로벌 허브도시 컨버전스(Convergence) 포럼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4월 23일 부산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컨버전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의 11개 혁신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되며, 이번 주제는 '글로벌 디지털 과학기술 허브도시, 부산'으로 진행하였다.

포럼에서는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요건, ▲국가전략기술과 부산의 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구축,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으로 가기 위한 디지털의 역할 등을 발표하고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구축을 위한 요건과 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주도형 도시 모델 사례와 국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9대 부산 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우선 집중분야가 제시되었고, 글로벌 허브 도시 구축을 위한 디지털 신성장산업 인력 양성 추진과 부산 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디지털분야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등이 제시 및 토론되었다.

이번 포럼은 부산지역 혁신기관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컨버전스 포럼으로 디지털과 콘텐츠, 과학기술 기반으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포지션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시작단계이며,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사업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6636>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890>
<https://www.nbnv.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77>

AI산업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서울연구개발지원단

도입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AI산업인력 역량강화
제조기업 리더를 위한 AI 도입·DX전략 세미나
 제조업 분야 AI도입의 필요성과 DX전략 수립과 사례분석

교육날짜 2024.5.21(화), 2024.5.22(수)
교육장소 서울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강남
교육대상 제조 기업 리더 및 이에 준하는 관리자 20명
 기업당 최대 3인 가능
교육비 전액 무료 (출석률 80%이상 이수시 수료증 발급)
강연내용 수요에 맞는 정부지원사업 소개 및 안내 가능
 기업 리더간 네트워킹장 마련 (중식 제공)
문의처 (재)서울테크노파크 02-944-6060/6074

1일차
 2024.5.21(화) 09:00-17:00
제조 산업분야 AI활용
 • AI활용 분야 도입 필요성
 • 중소기업 AI도입 및 적용 사례
 • DX, AI 관련 정부지원사업 소개

2일차
 2024.5.22(수) 09:00-18:00
DX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리더의
 DX전략 및 전략 수립
 • AI기술을 활용한 DX전략 수립 실습
 • 그룹별 DX전략 토론

교육 신청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테크노파크

서울테크노파크는 제조기업 임원진을 대상으로 ‘AI 도입 및 DX 전략 수립 지원 세미나’를 ’24년 5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진행하였다.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주관기관인 서울TP는 약 200여개 중소, 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기술 이론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였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AI 개념이해 및 도입 필요성 ▲중견·중소 제조기업 AI 도입 및 적용사례 (품질 관리 및 검사 자동화 및 공정 최적화) ▲DX, AI 관련 정부지원사업 소개 ▲4차 산업시대 제조기업 리더의 DX 비전 및 전략 수립 ▲생성형AI를 활용한 DX전략 수립 실습 ▲그룹별 DX전략 토론 등이다.

AI, DX기술 적용을 통해 기업 신사업·신시장 발굴을 희망하는 제조기업 리더나 이에 준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조기업의 AI도입, DX전략 수립,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보도자료 <https://www.startupn.kr/news/articleView.html?idxno=45711>

울산 연구개발지원사업 전주기관리체계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광역시 연구개발 지원사업 전주기관리체계 운영”의 일환으로 신규사업 분야 기술평가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기술평가위원회는 年 1억원 이상 시비투입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비 지원을 요구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의 적절성 △연구의 적합성 △추진계획 및 전략의 혁신성 △사업규모의 타당성 및 확장성 △기대효과 등 지원 타당성 및 규모를 검토·평가하는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평가위원회를 위해 180여명의 각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기술평가위원회는 이차전지, UAM, AI분야 등 다양한 신산업분야의 다수의 신규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연구개발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울산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지원사업 전주기관리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다.

2024년 중앙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 연계 R&D사업 설명회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2024년 중앙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 연계 R&D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R&D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DI) 4개 기관이 참석하여 그간 R&D 지원현황 및 금년 추진방향을 공유하였다.

단일 지역으로는 중앙부처 R&D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R&D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R&D 관심이 매우 높음을 입증하게 된 자리였다.

특히, 에너지, 정보통신분야(ICT, AI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보건 의료분야 등 다양한 국가R&D 사업 공유를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R&D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이날 자리에 참석한 지역기업 및 대학, 혁신기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성장 극복을 위해 열면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금번 계기를 통하여 역량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 중앙 R&D로의 도전을 통한 성과창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복합소재연구회 산하TF별 국책과제 발굴 공유회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복합소재연구회 산하TF별 국책과제 발굴 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등에 의한 지역 주도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추진된 금번 복합소재연구회의 추진경과와 더불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연계한 지역 혁신기관 특허경쟁력 현황 보고 등을 공유하였다.

금번 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2024년에 제시된 국가공모사업에 수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향후 신규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 연구회별 산하TF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책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제23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 개최

(주제: 제주형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5월 21일 그린수소 전주기적 비즈니스 모델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제23회 제주미래가치전략 포럼(주제: 제주형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두산에너지빌리티를 비롯한 도내의 수소산업 관련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용 거점 연구개발(R&D)센터의 필요성, 대량 수소 저장시설의 구축을 위한 저장량 극대화, 구축 및 운영 비용 최소화 관련 전략 마련의 필요성, 다양한 조건에서의 수소 연소 성능 검증을 통한 수소 연료의 유연성 확보 등의 의견이 나왔다. 본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제주는 그린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기술 분야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제 및 수소 전 과정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193>

(헤드라인제주: 제주, 그린수소 생태계 선도위한 R&D 센터 필요)
<https://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27617>
 (뉴제주일보: 해수전해 기반 원천기술로 그린수소 생태계 선도 필요)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 사전회의 개최 및 협의회 운영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R&D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남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 중점과학기술분야로 선정된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 연계 스마트팜 분야와 연계하여,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 운영을 통해 충남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올해 연말 총 2건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본 이슈페이퍼는 충남도 모빌리티 및 수소·스마트팜 산업 육성 정책 현안 대응 및 산·학·연 간 신규사업 발굴협력 제안의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제1회 충청권 협의체 개최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연구개발지원단이 주최한 네트워킹 행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권명하 센터장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충청권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충청권 협의체는 그간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의 실무진이 모여 초광역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연계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충청권에서 추진할 특화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협의체의 운영 개요와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23년에 발굴된 탄소중립 분야의 과제 결과를 통해 충청권역의 연계 및 활성화 계획을 논의했다.

보도자료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52>

핀란드 에스포와 선진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기반 마련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연구개발지원단은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비즈니스 핀란드, 미래양자융합센터 등을 중심으로 핀란드 에스포와 헬싱키를 방문하여 디지털 및 양자기술 등 딥테크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육성을 위한 양 지역의 상호 국제협력을 위한 성과를 들고 왔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 충북과기원-엔터 에스포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노키아, IQM 등 디지털 및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충청북도-에스포시 간 상호교류를 위한 논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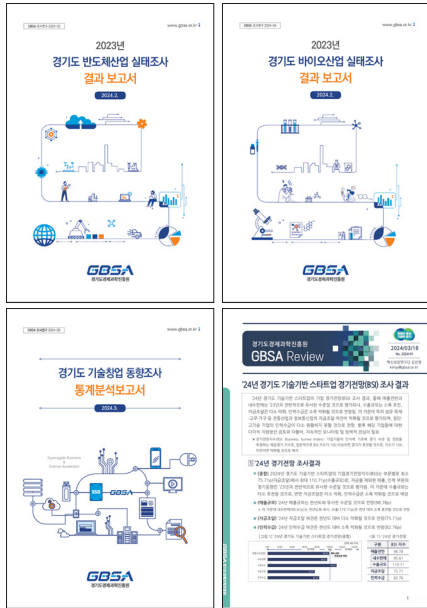
이번 방문으로 충북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선진모델을 경험했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두 지역의 혁신기관과의 교류를 넘어서 충청북도와 에스포시 간의 국제협력으로 확대를 제안하였다.

보도자료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7604>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조사분석 보고서 및 GBSA Review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최근 경기도 산업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조사분석 보고서 3건과 GBSA Review 1건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경기도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발간된 보고서에는 ‘2023년 경기도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3년 경기도 반도체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경기도 기술창업 동향조사 통계분석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들은 각각 경기도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기술창업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들의 경영애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GBSA Review에서는 ‘24년 경기도 기술기반 스타트업 경기전망(BSI)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경기전망을 조사하여,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board/recent_data.do

GBSA Daily Report, 월간 헤드라인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GBSA Daily Report와 월간 헤드라인을 배포하였다. GBSA Daily Report는 과학기술, 제조혁신, 지역경제, 벤처 스타트업, 반도체, 인공지능/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등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9가지 카테고리별 주요 뉴스를 매일 제공한다. 또한, 월간 헤드라인은 한 달간의 주요 뉴스를 종합하여 월 1회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발간된 자료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board/daily_trend.do
http://pf.kakao.com/_xcxexdYxj/friend

경남TP, 미래차 핵심부품 눈으로 확인하고 시제작까지 지원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오는 13일(수)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Ⅲ에서 ‘미래차 Teardown 부품 전시 및 ‘24년도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차 분해(Teardown) 전시 및 기술분석 세미나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이 사업은 미래차 시장 신규진출 기업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신규 아이템 발굴, 애로해소 기술지원 등을 제공해 미래차 부품 업종 전환을 돕는다. 전시회는 기존 내연기관 부품 생산기업의 미래차 부품사 도약 지원을 위해 테슬라 Model3 차량을 분해하여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기술 트렌드와 구조 분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기업에 전시된 부품을 대여하여 기업이 자체 기술 분석, 역설계 등 선진 기술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자동차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지원사업 등 7개 기업지원사업의 통합설명회를 진행한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기업이 자체적인 기술력을 강화하여 경남 미래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647382>

서울시 R&D 사업 관련 보고서 발간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 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2월 2022년 서울시 R&D 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와 2021년 서울시 R&D 성과분석 보고서 2종을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전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성과 현황을 제공하여 지자체가 정책기획, 기업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st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홈페이지(stis.or.kr)-게시판-발간자료

04 R&D 성공사례

대구광역시 플랫폼형 지역현안 발굴체계 운영
대구연구개발지원단

R&D 성공사례

대구광역시 플랫폼형 지역현안 발굴체계 운영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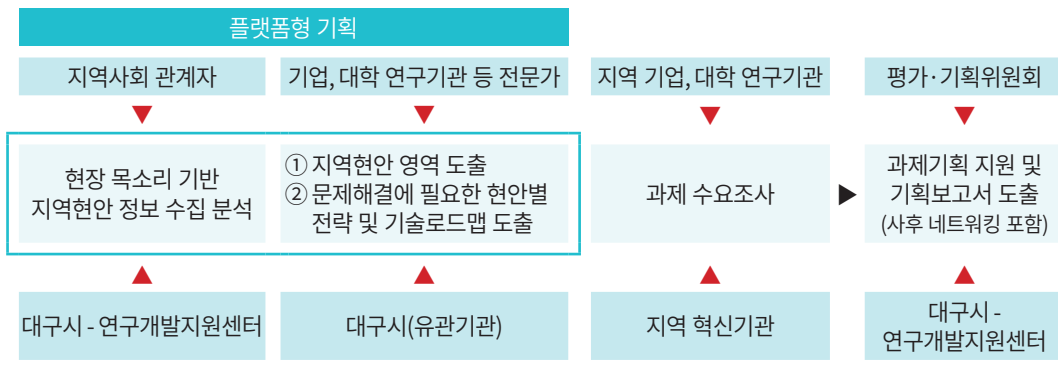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확장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를 과학기술로의 해결을 위한 역할 요구와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사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
 - 기존 R&D 기술 고도화의 경제·성과 창출 목표에서 사회문제 해결로 초점이 옮겨지며, 매개 사용자로서 지자체와 사회경제조직 등 현장 수요조직 참여가 강조
- 대구시는 시민원탁회의, 도시문제발굴단, 리빙랩 사업 등 대구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은 부족
 -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18년도부터 과학기술 기반 현안해결 R&D 과제 발굴·기획 중이며, 그간 국비 과제 지역유치 등 성과가 나타나는 초기 성장기 단계
- 이에, 지역 R&D 혁신주체(시민, 연구기관, 대학 등)들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R&D로 기획하여 수행하는 경험을 통한 지역의 R&D 역량 강화 및 자생적 R&D 생태계 구축이 필요

◆ 추진내용

- [Step 1] 지역 R&D 혁신기관의 R&D 기획역량 및 기획 인식 제고
 - 기 도출된 기획과제 및 지역현안 발굴 프로세스를 통해 중앙 부처 R&D 사업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혁신기관의 R&D 기획력 및 기획의 필요성 인지
 - 지역 스스로 '과제 발굴-기획-R&D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R&D 혁신기관들이 과제 기획의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지역 자생적 R&D 생태계 구축
 -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내 문제성·특수성을 반영한 현안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대구광역시 개방형 플랫폼 구축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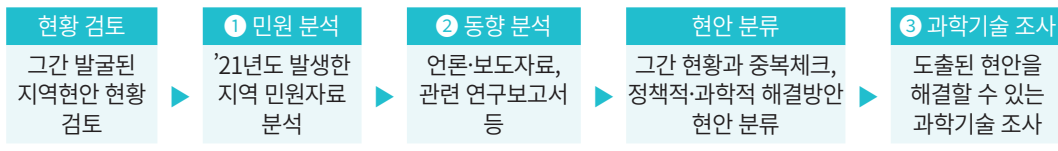
【지역 과학기술 동향분석 플랫폼 구축·운영 추진절차】



● [Step 2]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역현안 발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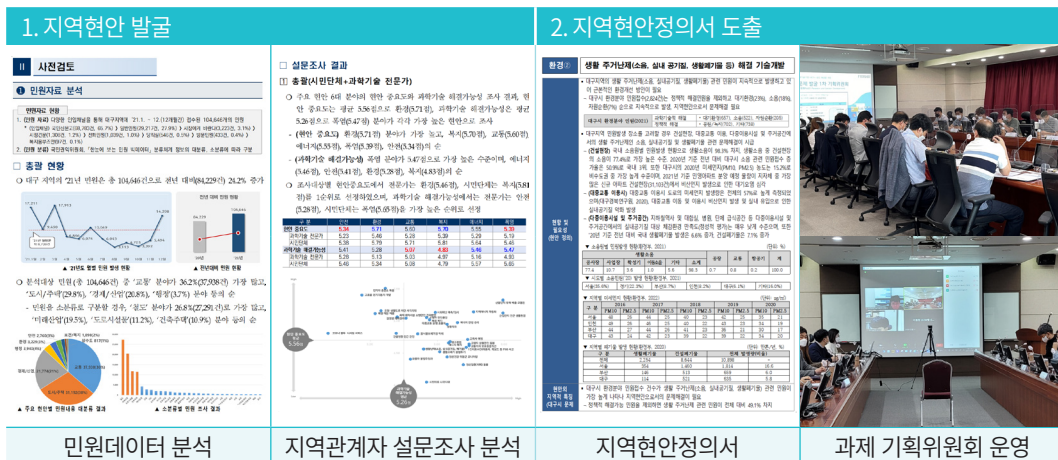
- 시민 직접 참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시민원탁회의’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 발굴을 위해 민원자료, 설문조사 활용 지역현안 발굴
- 지역민 수요·분석과 지역에 적합한 현안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의견수렴 및 이슈 발굴

【지역 현안 발굴절차】



● [Step 3] 지역의 적절성·시급성·전문성이 높은 지역현안정 의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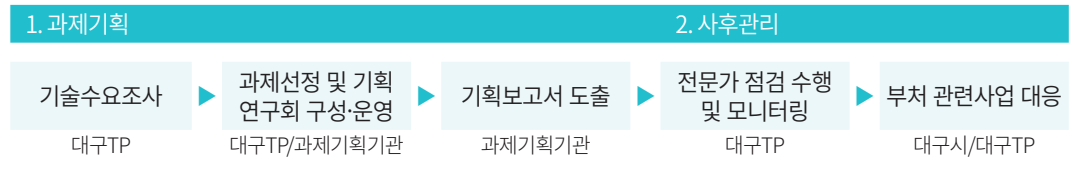
- 발굴된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 내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운영과 통계데이터 기반의 현안분석 추진
- 기획 고도화 등을 통한 지역현안 구체화 및 RFP 형태의 지역현안정 의서 도출



● [Step 4] 과학기술 기반 지역현안 해결형 R&D 과제 기획 및 지원

- 대구지역 내 연구기관 및 지역기반의 민간 R&D 기관을 대상으로 7개 분야(에너지, 교통, 복지, 안전, 폭염, 환경, 감염병)의 10개 지역현안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정부공모사업 또는 국비유치가 가능한 과제, 도전적 현안해결 기획과제, 융합과제 등의 후보 모집과 평가를 통해 선정 과제에 대한 통계자료·네트워킹·과제기획 지원금 등 지원

【지역 현안 해결형 과제기획 및 지원절차】



◆ 추진실적 및 성과

- '18~'23년 플랫폼형 지역 현안 발굴 체계 운영을 통해 도출된 기획과제 중 중앙부처 R&D 7개 과제 110.1억원 지역 유치 지원
- 지역 내 주요 분야(안전·에너지·복지·교통·환경·폭염) 37개 지역현안 발굴
- 수요조사로 접수된 44개 과제 중 23개 과제기획 및 네트워크 지원
- * 안전 3/8개, 에너지 7/12개, 복지 3/9개, 교통 2/5개, 환경 2/4개, 폭염 4/5개, 기타 1/1개

【기획지원 과제의 지역 유치 현황】

구 분	사업명	과제명	국비(억원)
'19년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취수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수처리 산업 육성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	50.0
	행안부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	전통시장 등 개방형 공간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20년	행안부	지역맞춤형문제해결기술개발	대구 폭염재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온열질환감지 IoT 플랫폼 기술개발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	시민 체감형 안심 가로등 플랫폼 개발
'21년	행안부	지역맞춤형문제해결기술개발	도시 노면 온도저감을 위한 SMART 혼합소재 개발
'22년	행안부	지역맞춤형문제해결기술개발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개발
'23년	행안부	지역맞춤형문제해결기술개발	전통시장의 화재 시 조기감지를 위한 능동형 방화천막 자동전개 시스템 개발
합계			110.1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및 대구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시 주요사례 선정 및 사업내용 반영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혁신역량 격차심화 등 중앙정부-지역 간 연계 방안으로 지역혁신을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활성화 추진
- 「지역 과학기술 문화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플랫폼형 지역혁신 발굴체계 사례 반영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주요내용(안) (2023~2027) 2022. 9.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주요내용(안) (2023~2027) 2022. 9.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대구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초안 (2023~2027) 대구광역시	2-2. 혁신 지역혁신기반 선입 Strategic (전략) Regional (지역) Support (지원) 2024년 3월 25일 (제24대국회국회) 제정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대구시 종합계획	지역 환경분석

행안부 및 지자체 R&D 담당자 대상 플랫폼형 지역혁신 발굴 우수사례 발표

- 행안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 워크숍」 플랫폼형 지역혁신 발굴 우수사례 발표 및 지역맞춤형 사업발굴 체계·성과 공유와 개선방안 논의 등

행안부 워크숍 지역 우수사례 발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00~15:05 05 개회 및 행사안내 15:05~15:10 05 인사말씀 15:10~15:20 10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추진현황 및 계획 15:20~15:40 20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사업 발굴 추진체계 15:40~16:10 30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사업 주요성과 및 기획 추진체계 16:10~16:50 40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사업 주요성과 및 기획 추진체계 16:50~17:00 10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사업 주요성과 및 기획 추진체계	행안부 워크숍 공문
---------------------------	--	-------------------

“상기 자료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 2022년 지역혁신 R&D 지원사업 우수성과 경진대회”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우수사례를 재구성 하였음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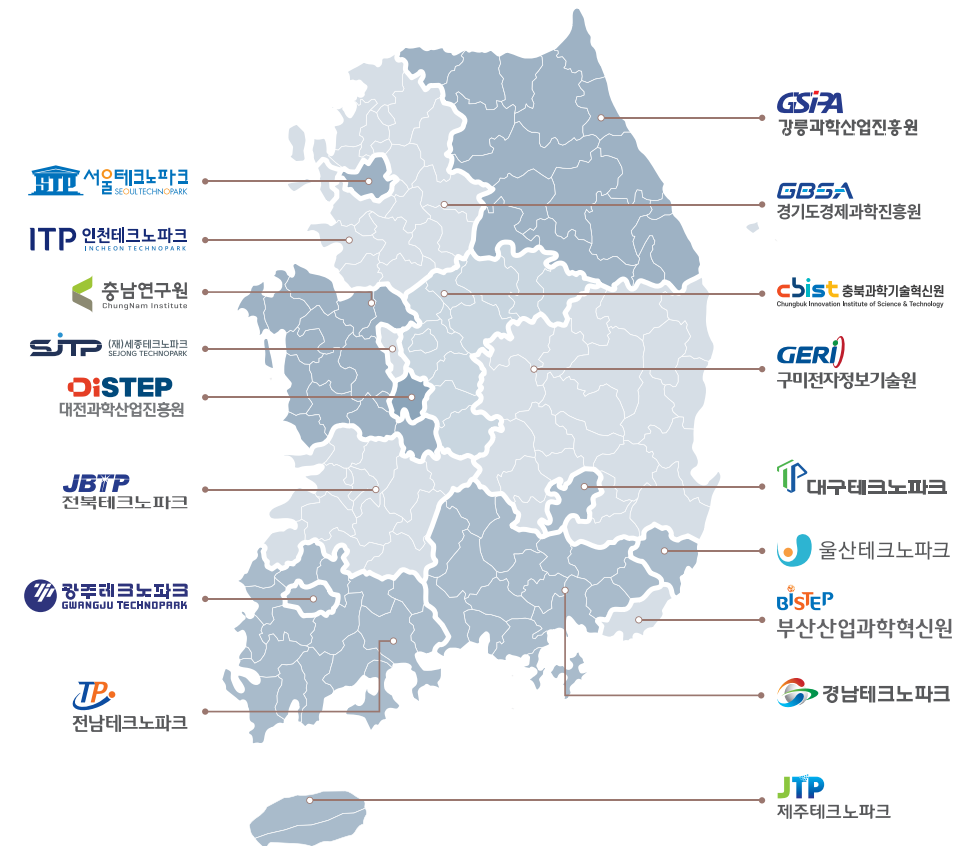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 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	강원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rnd.gsipa.or.kr
경기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gtis.gbsa.or.kr
경남	경남 연구개발 조사·분석 정보제공 시스템	gctis.gntp.or.kr
광주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gjtis.gjstec.or.kr
대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re.kr
대전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daon.distep.re.kr
부산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btis.bistep.re.kr
서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준비중)
세종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울산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md.utp.or.kr
인천	인천R&D정보시스템	irds.itp.or.kr
제주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전남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jntis.jnsp.re.kr
전북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rnd.jbtp.or.kr
충남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cnstis.net
충북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esearchweb.cbist.or.kr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033.650.3320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35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554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0852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45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8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479.2217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33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609.0411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749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76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260.9322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042.865.0511	충남	충남연구원	041.540.3807
부산	부산산업과학혁신원	051.795.5023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210.0866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944.6072			



2024 Vol. 24

ISSUE& FOCUS